

# 웰에이징 전문가의 교육역량에 관한 연구: 성차, 연령, 교육경력 중심으로

백청강\*, 구진희\*\*, 김광환\*\*\*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목원대학교 SW교양학부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victorybck@konyang.ac.kr

## A Study on the Educational Competence of Well-Aging Expert :Focusing on gender, age, and educational experience

Cheong-Kang Back\*, Jin-Hee Ku\*\*, Kwang-Hwan Kim\*\*\*  
\*\*WellDying Convergence Lab.,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SW Liberal Arts, Mokwon University University  
\*\*\*Dep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웰에이징 전문가의 교육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웰에이징 교육분야의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한국갤럽을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약 4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웰에이징 전문가의 교육역량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40~50대(M=3.22), 60대(M=3.18), 40대 미만(M=3.10)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웰에이징 전문가의 교육역량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교육경력 12년 이상으로 높은 집단에서 교육역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 1. 서론

현재 국내 웰에이징 교육은 전반적으로 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노인학, 사회복지학, 의학, 보건학 등 다양한 전공 영역에서 융합학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웰에이징 교육대상, 웰에이징 정의, 웰에이징 교육의 범위, 웰에이징 교육 방법, 웰에이징 교수자 전문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웰에이징 교육 분야에 대한 더욱 명확한 학문적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웰에이징 교육현장의 전문가들의 교육역량을 살펴보고 웰에이징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분야 정책 제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웰에이징 전문가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을 통해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6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웰에이징 전문가의 교육역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김창환 등(2015)이 개발한 교육역량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웰에이징 전문가의 교육역량이 성차, 연령, 교육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웰에이징 전문가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F=3.365, p < 0.05$ ). 또한 웰에이징 전문가의 교육역량은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 $t=-2.014, p < 0.05$ ), 교육경력 12년 이상의 집단(M=3.24)이 12년 미만의 집단(M=3.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본 연구 결과 웰에이징 전문가의 연령은 교육역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웰에이징 전문가의 교육경력이 증가할수록 교육역량 전체는 비례하여 향상된다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 따라서 웰에이징 전문가의 다양한 개인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며 웰에이징 전문가 특성을 고려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1]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 (IV): 교원역량지수 개발 연구”, 2015년 12월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C2A04092504)